

제9기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5강~8강 "장애인 당사자와 인권"



지난 1강~4강 편에 이어 제9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5강~8강까지의 진행상황을 회상해 보겠습니다. 5강 주제는 동료상담이란? 장애인과 조력자로 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성미 소장님께서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강의 자료로 쓰인 PPT에 쓰인 용어들이 조금 어려웠다는 평이 있었지만 강사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 공유와 함께 강의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동료 상담에 도움이 되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터미네이터 제니스> 영화 관람기



2015년 7월 2일 목요일 서울시센터지원사업팀 스텝 및 회원 18명과 함께 노원롯데시네마에서 그 날 첫 개봉한 <터미네이터 제니스>라는 영화를 관람하였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 영화 한 편 보기도 쉽지 않았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좋았다.

자기주장훈련



09차 집단자립생활기술훈련이 07월 18 ~ 19일 이틀간에 걸쳐 난지캠핑장에서 있었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평소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 느낌 등을 표현하고 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들을 위해 자기주장훈련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해 봐요>란 프로그램을 양천구장애인체육관의 이상희 관장님을 모시고 진행했다.

장애인자립생활주막 요리실습: 소고기 장조림



직장인들의 매일하는 고민 중 하나는 "오늘 점심은 뭐 먹지?" 라는 메뉴 선택이다. 이와 같이 매번 요리실습 레시피를 정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입주자의 욕구대로 프로그램은 진행되지만 막상 하고 싶은 요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확히 아는 요리도 없고 먹어는 봤어도 요리재료를 몰라서 항상 요리에 대해 추상적으로 얘기해 준다.

이번 실습에 대한 요리도 입주자가 "간장에 고기 넣은 것" 이라는 추상적인 얘기를 통해 아~ 소고기 장조림요? 라고 되묻자 입주자는 "네 그거요" 라고 대답을 했다 아무래도 시설에서 스스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요리 레시피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겪는 것 같다.

장애인파파라치



잠실 지하상가를 돌며 편의시설이 잘못된 2곳을 7월호에 실었다.

이달의 정보



그림출처: <http://www.irepublic.kr>

8월 <평생교육 재능기부 강좌 > 수강생 모집과 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 공모전', 그리고 기후변화교육센터 '여름방학 환경교육' 참가자 모집 안내해드립니다.